대학의 참된 가치와 역사발전

—등룡문에 첫발을 디딘 신입생을 환영하며

시론

신 용 철 〈문리대교수·사학〉

대학생에로의 여러분의 성장과배움에의 동도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곳에 전혀 관심을 가질수 없었던 수년간의 입시준비를 끝내고 여러분들은 지금과는 다른 세계에 진입한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이란 동서양의 개념에서 모두 하나의 우주와 세계를 뜻합니다. 동양에서 대학은「수신제가 및 치국, 평천하」로 학문을 정의했으며 독일 베를린대학의 창설자인 훔볼트(1796~1859)도 대학이란「진리를 탐구하고 학문하는 방법을 배우는 상아탑」이라고 했읍니다.

현대의 철학자 야스퍼스(1883~1969)는「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라고 대학의 이념을 정의했읍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 대학은「사회에 봉사」한다든가,「취직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란 보다 가깝고 현실적인 목표가 소박하게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전자의 목표가 그대로 무시될수는 없으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서 그 양자의 차이는 표현상의 문제이지 근본적인 차이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그 나라의 백년대계이며 사회발전의 저력(底力)이 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여기서 말한 저력이란 바로 대학과 교육의 기능입니다. 그러고 대학의 교육은 이 저력을 형성해 나아갑니다. 어 저력은 곧 대학에서 탐구되는 진리 즉 학문연구에서 비롯됩니다. 교수와 학생들의 땀에 젖은 고독속에서의 연구를 위한 투쟁에서만 이 학문의 열매는 매우 어렵고 아주 느리게 얻어집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주인은 교수와 학생이며 사회며 국가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모두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교수와 학생은 다만 사회와국가의 위임으로 그들의 기대속에서 그 거대한 과업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탐구와 학문의 성취를 위해 바람직한 환경—전제조건—은 무엇이겠읍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사회의신뢰와 사랑이며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자율성의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학문탐구를 위해서는밖의세계의 직접성으로부터의 中立性의 보장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이것이 우리가속해있는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독립적인 공간에서 중립성은 이 연구해야하며 이 연구를위한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하고 다각적인 탐구와 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속에서 자율적인 意識은 싹트게 됩니다. 이 자율적인 의식은『생각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생각하는』기능이며 태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자신의 価値観을 형성해 나아갈 것입니다. 나와 주변과 사회및 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볼수 있는 능력인 가치관은 모든 대상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는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입생여러분들의 대학에서 보낸 첫 한주일동안의 인상은 과연 무엇이였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어오고 생각했던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학교시설이 있는 때문에서입니다.

그러고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는 順流만 있는것이 아니고 逆流와 장애가 항상 있어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막지않으면 흐르지않고 정지시키지않으면흐르지 않는다(不塞不流, 不止不行). 는 뜻깊은명구는 바로 이러한상황을 잘 말해줍니다.

모든 유기체가 生長하고 달과 계절이 바뀌듯이 자연과 사회는 변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와 제도도 끊임없이 변화해야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썩고 계곡의 막혀진 급류처럼 쏟아져내립니다.

> 역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건 정지하지는 않으며 우리는 그 도도한 흐름속에 함께 숨쉬고 있으니 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혁 속에서 제기능 찾아야

가능해집니다. 공간이야말로 사물을 널리 포용하며 마찰과 파탄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러한 공간이 곧 학문과 진리탐구 그자체와 그를 위한 생활의 자유로운 영역이 됩니다.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형성하며 또 어떻게 활용해야하느냐? 가 곧 오늘날 우리의 대학이 겪고있는 진통의 본질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데나, 탐구한 그 진리를 발표하고 전수하는것이자유로와야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의 시녀가 되어도 안되고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이미 그 알맹이는 다 빠져없어지고 껍질만 남은 즉 화석화된 제도와 형식에 얽매여서도 안되고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권위에 짓눌려서도 안됩니다. 자유로이 생각하고 활발하게 토론하며 懷疑하고 批判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학의 분위기는 자유롭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비판적이어야함을 의미합니다. 대상을 깊이 연구하며 교수로부터 보다는 주장과 비판이 강한 여러 벽보나 큰 글씨의 현수막들 혹은 고등학교에서 아직 생소했던 최루탄가스의 냄새는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만의 경험을 통해서 대학에 대해 성급한 결론, 질은 의혹 또는 불가사의한 느낌인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대학의 기능및 사명과는 어떠한 함수관계에 있는가 생각해 보게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해보아야하며 더우기 연구하는 차원에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결론이 어떠한 것이건 너무 조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읍니다. 역사의 흐름은 지속적이고 장구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건 정지하지는 않으며 우리는 그 도도한 흐름속에 함께 숨쉬고 있으며 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시설이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역사에서 자주 보여 온 혁명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불결 곧 사회의혁명같은것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그 사회의 개혁의 의지와 능력의 여부에 달려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급격한 좌절이나 단절, 혹은 파괴를 원치 않습니다. 급격하고 과격하지 않은 개혁에 의한 사회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에는 언제나 전통을 고수하려는 보수자들의 장애를 받게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보수파와 그것을 혁신하려는 개혁파의 갈등이 있읍니다.

이러한 양자의 대립충돌은 중국의 易經에서 말한 음양및오행의 복잡한 변화와 서양의 변증법이 잘표현해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힘의 대결은 반드시 절대적일수만은 없읍니다. 양자의 補完이나순환을 통해서 변화에 적응하거나 변화를 주도해야합니다.

혁명성이 짙은 프랑스와 중국, 개혁성이 강한 영국과 일본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마 시사해주는것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와 대학 본래의 기능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장애를 받고 있는지? 장애를 받는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그에 작용하고 있는지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의 공통의 관심사이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경우를 대답으로 가정할 때 수많은 사람의 수많은 대답과 처방이 가능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외부의 영향을 탓하지 말고 우리대학의 어려움에 관계되는 내적 포인트를 몇가지 생각해 볼까합니다.

우선 세대간의 차이입니다. 기성세대의 사고는 대부분 그가 성장할 때 형성된것으로 환경이 크게 달라진데서 자란 후세대의 신고를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기성의 전통에 대한 미련이 크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言語의 道斷이 생기고 여러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대간의 갈등은 인류역사상 언제나 존재해 온 것이기에 크게 우려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갈등의 원인을 탐구하거나 해소하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두려운것입니다.

다음은 권위주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 사회나 직장·학교등에서도 권위는 우리들의 비판과 토론을 크게 억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보는 많은 회의가 얼마나 권위주의적이며 토론이 무시되는가를 보고 놀라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교적인 윤리에서 비롯한 전통으로 생각됩니다. 질문과 비판이 장려되는 환경속에서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의 발전이 가능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비판이 반드시 공격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비판을 통해서만 올바른 의식에 도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自律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읍니다. 대학의 기능이 자율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읍니다.

대학의 자율이야말로 학문과 양심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중립과 대학만의 공간을 형유할 수 있다는것도 이미 지적했읍니다. 따라서『교수에게 맡긴다』는 부모의 사고나『교수에게 책임이 있다』는 세평은 정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이미 독립적인 사고를 자율적으로 할수있는 연령에 도달했다는 것과 자율을 통해서만 그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키워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율은 순수성과 사심없는 태도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칠정도로 강조하는「일사불란」식의 질서보다는 그것이 허술하게 보일지라도 자율적으로 지키는 질서속에서 사회는 발전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역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비판의식과 자율의 문제도 그것이 우리들의 사랑을 함께 하지못하면 알맹이가 없어집니다.

자기자신은 물론 내주위의 환경, 사람, 내조국, 내 사회를 진정으로사랑하십시요. 그러한 사랑위에서 성실히 학문을 연구하고 부조리를 비판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우리의 최망에 찬 대학4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이 국가 사회의 저력이고, 진리탐구가 대학의 저력이라고 한다면, 진리탐구의 저력은 학문에 대한 사랑이 그의 저력이 될 것입니다.

그 포용적 저력인 사랑 위에서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은 살찌워질것입니다. 무진장의 진리와 할일많은 국가및 사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올바른 의식속에서 항상 生動하는 정신으로 더욱 큰 보람을 거두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朔風

계절의 順理와 함께 歷史의 순리도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곳곳에서 봄냄새가 물씬 풍긴다. 빙판 대신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보도에서 부터 3低의 경제, 대화창구를 모색하는 政界에까지 봄 색깔은 한층 짙어져 가고 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와 백설이 분분히 휘날리던 지난 겨울이 있었기에 가슴에 와닿는 감촉 또한 더욱 살풋하다.

이 모든 것이 계절의 順理라면 20년 장기집권에 만신창이가 된 필리핀을뒤로하고 망명길에 올라 선 마르코스의 초췌한 뒷모습에서 역사의 順理를 배우게 된다.

부정과 부패로얼룩진 장기독재의 말로는 피살과 국제방랑객등으로 영락될수밖에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비록 역사의 한장에때문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라는 이름이 기억되기 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긴했지만, 어쨌든 침실에서 산소통에 의지해가면서 까지 권좌를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다못해 美政部에게 더남아있게해달라고 애걸까지했다는 언론보도에서 무덤까지차고 간다는 정권욕의 무서움을 느낀다.

마르코스의 말로는 72년 계엄을 선포하면서 가속화 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0월유신이 선포되기 한달전인 그해 9월, 공산주의 세력제거와 사회개혁을 명분으로 이를 선포하면서 장기집권과 탄압의 터전을 마련하였지만 이것이 야반도주와 망명으로 치닫는 지름길이 될 줄 어찌 알았겠는가. 수 많은 야당정치인과 학생들을 구속하는등 인권탄압과 절정에 달한 경제파탄으로 피폐된 오늘의 필리핀만이 이제 그의 20년 정치사의 훈장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지난달 7일 자그만치 7천2백억이나 챙겨 미공군기를 타고 아이티를 빠져나간 뒤발리에, 이란의 팔레비왕, 니카라과의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쿠바의 풀레시오 바티스타등과함께 이제 어엿하게(?) 망명독재자의 대열에 낀 마코스에게서도 그들 末路의 환영을찾아 보기가 어렵지 않다.

물론 그도 다른 망명독재자들 처럼 거액의 돈과 보석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약 2억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천2백25억원.

人乃天이라 하였던가

풍부한 농·수·공산 (工産) 자원을 가졌을에도 국민소득 7백달러 밖에 안되는 나라, 배고픔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구하기 위한 시정은 안중에도 없이 집권에만 눈이 어두웠던 마르코스는 民心을 잃고 자진 下野까지 거부한 채 급기야 국민의 봉기에 의해 20년 종지부를 찍어야 했다. 족벌정치와 축재하기에 바빴던 그에게 내린 종국은 어쩌면 필연이였을 것이다.

그는 外誌 인터뷰에서「유혈사태를 막기 위해」망명의 길을 떠났다고 했지만 그의 대막을 지켜보는 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필리핀의 속죄양이 아닌 한낱 종이호랑이 조차로도 보지않는다는것을 아는지—.

괌에 도착한「노영웅」의 초췌한 모습과 투쟁의 L자를 그어 보이며 군중에게 환호하는 코라손 현대통령의 대조된 모습을 보는 우리 가슴에 만감이 교차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직도 마르코스의 잔영이 짙게 드리워져 있으나 그래도 찬연히 피어나는 필리핀의 봄, 할 일이 더 많은 코라손의 봄, 그리고 이 땅의 봄 기운 탓인지도 모른다.

계절의 順理만이 아닌 역사의 順理가 정착된 봄을 맞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같은 심경일 것이다. <邦柱>

"대학의 참뜻을 재음미 하자"

—입학식과 총학 출범에 부쳐

사설 지난 3일 교정에서는 86학년도 신입생들의 입학식이 열리고 이어서 6일에는 새학기를 맞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의 출범이 있었다.

우선 새로이 대학이라는 지성인의 사회에 첫발을 들여 놓는 신입생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다른 대학보다 높은 경쟁률속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어려운 입시의 관문을 뚫은 신입생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주의깊게 지켜 보고 싶은 마음이다.

다음, 6일에 있었던 총학생회의 발대식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사히 치루어 졌던 것을 축하한다.

봄이 다가오는 길목에서 치루어진 이 두 행사의 의의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입학식은 신입생들에게 인생의 새로운장의 시작을, 그리고 총학생회의 발대식은 기존 학생들의 새로운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기 새로운 章을맞은 두개의 집단들을 위해서 대학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대학은「학문의 전당」이라는 점을 특히 신입생들에게 알리고 싶다. 『大学은 전제가 다』없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몸젠의 말은 대학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이다.

학문을 하는 데는 전제가 있을 수 없다. 시대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시대를 풍미하던 대학의 구성원들은 학문의 연구와 수호에 전념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과 대학생들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즉70년대이래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로 들어가면서 사회·경제적인 급격한 변화가 수 많은 갈등과 모순들을 파생시키고 또 그 갈등과 모순들이 젊은 대학생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학생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대학이 그 본질인 학문을 버릴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난관은 오히려 보편적 지식의 중가로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 자체가 우리가 처한 역사적인 현실을 보는 시각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학문의 연구를저해하는 요소는 될 수 없다.

또 한가지, 학문의 자유와 더불어 우리나라 대학의 과제로 간주되는 것은 대학의 자율화문제이다.

최고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스스로의 일을 처리해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自律化가 거론됨은 어떠한 의미에서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그러한 당위성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수년간 대학캠퍼스는 최루탄과 타율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캠퍼스 안팎에서 몰아치는 거센 바람으로 자율의 싹은 시들대로 시든 지경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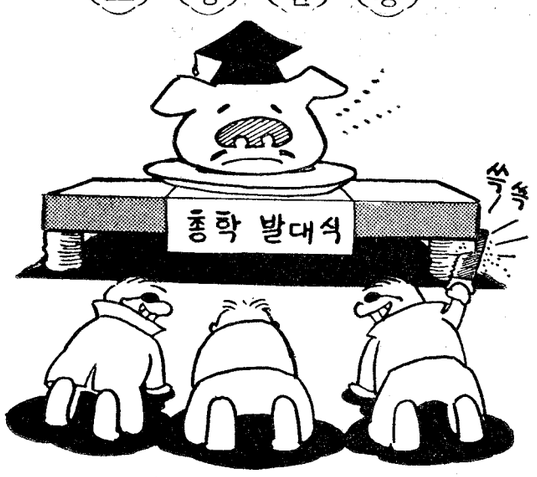
자율성이 이렇게 약화됨으로써 상처를 받는 것은 대학인 뿐만 아니라 大学의 기능이다. 다니엘 벨에 의하면 대학의 기능은 두개의 상반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기존사회의 수호와 그 반대개념인 기존사회에 대한 반발 내지는 창조적 기능이다. 가장 이상적인 대학의 상태는 이 두가지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첫째 기능, 즉 기존사회에 대한 수호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두번째인 大学의 창조적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약화된 창조적 기능을 되살리는 일은 우리 대학생들이말아야 한다. 시대상황의 변화가 대학에 독소로 파급되는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의 핵인 학생들의 굳건한 행동이 필요하다.

대학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없이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신입생의 입학식과 총학생회의 발대식에 즈음하여 대학의창조적 기능의 부활과 자율화에기대를 걸어본다.



<자네도 안경을 쓰게나>

SS FASHION

뉴망이 제안하는 뉴맨의 대학생활

●젊음이 숨쉬는 우리들의 캠퍼스

멋진 대학생활, 멋지게 보내자

학점의 노예가 되지말라 : 140의 저지선을 돌파하라. 왜냐하면 그것의 실패는 곧「長学生」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졸업정원제 실시이후 면학 분위기가 정착되어 아바(AB)로 장식해도 결코 뽐낼만한 일은 못되는 현실이다.
크리스챤 디올(CD)이면 그야말로 낙담, 무기 창고(F투성이)가 되면 뿡./대학을일찍 떠나야하는 비운을 맛봄은 물론이다.「F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하는 학생은 커닝의 3대 요소라는—감독의 장님화, 책상의 노트화, 눈운동의 원활화—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고역을 치르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학점의 노예가 되지말고 학점의 주인이 되라. 시대는 당신의 이력을 곧 성적증명서에 박힌 ABCD 그대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그럭저럭 대학에 들어오면 넓은 문으로 쉽게(?) 나올수도 있었지만 이젠 오로지 실력이 가장 좋은 힘이다. 허위자백서는 금물. ET(이번 학기 탈락자)가 되느냐, ET(이번학기 톱)가 되느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자, 한달에 얇은 원서라도 하나씩은 애인처럼 끼고 다니자—.

벽 계수도 아니다. 처용부인도 아니다 : 미팅 — 이제는 이것도 벌써 대학인만의 전유물은 아닌듯 싶다. 실제 고등학생들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러나 고등학교 때의 딱히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는 불안감 보다는 이론으로서 대접받으며 마음껏 즐기는 대학미팅이야말로 대학인의 필수과목임을 부인할 수 없다.
「벽계수」도 곤란하지만「처용부인」도 곤란하다.
되도록 인간성이 결여된 졸팅, 007팅, 피팅은 한번의 경험으로 족할듯—
보드카를 발견하면 대쉬하는 것도 특권이라면 특권이다. 어느날여학생이 지각을 했다.
『어떤 남학생이 쫓아와서 늦었어요. 오늘은 늦게 쫓아오는 바람에—』
경양식이야말로 경제적이지 못한 서양 음식들과 산으로 자연을 여자 삼아 데이트하는것도 더큰 의미의 만남인지도 모른다.

내가 죽으면 일제히 우는거야—레디고/: 운전사의 유언은『내 엔진도 이제 말을 듣지 않는구나』이고 어느 영화감독의 마지막 장면은『자, 내가 죽으면 일제히 우는 거야, 레디고./』였다. 이정도는돼야인생이 값어치 있지 않겠는가— 무엇이 되어야 겠다는목표는 이미 대학생활을 통하여 가져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넓은 교우관계를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서클은 바로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졸업생은 '대학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클을 다니는 것이라고' 공언했을 정도이니까. 한가지 사족처럼 붙이자면 대학내에서 심심찮게 서클 선후배 커플이 눈에 띄는 것도 같은 공감의 기반위에 새로운 삶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에게 결혼은「결국 혼이 나는 것」이 아니라「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절차였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창시자는 의상대사? : 어떤 옷을 입어야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함은 옷에 관한한 활동성이 뛰어난 것이 물론 좋다. 한 때는 야전잠바에 검게 물들인 가난한 고학생 타입의 터프가이 스타일이 유행처럼 눈길을 끌었으나 현재는 개성존중의 시대. 자신만의 젊음을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패션아이템을 찾아라. 화려하기 보다 밝고 신선한 칼라에 촛점을 맞추고 적은 옷으로도 멋지게 코오디네이트할 수 있는「패션아이」를 가져야 할것이다.
우리나라 패션의 창시자는 의상대사(?)가아니라 캠퍼스내의 당신이될수도 있다. 패션은 자존심—멋진 젊음을 멋지게 표현하는것도 대학생활에서 느낄수있는 또 하나의 특권이다.

블란서 풍의 캐쥬얼웨어—뉴망
NEW MAN JEANS